

 기획재정부		<h1>보도자료</h1>	
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21. 12. 10.(금) 08:30
담당과장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장 김귀범 (044-215-2830)	담당자	이재현 사무관 jaeheon7@korea.kr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나상곤 (044-215-4510)		이현태 사무관 leht@korea.kr
	경제정책국 상생소비지원추진팀장 이희곤 (044-215-2942)		조문경 사무관 keepangel88@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044-215-2770)		이상홍 사무관 lsh0622@korea.kr 신기태 사무관 shinkt89@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장 이보인 (044-960-6160)		신대원 서기관 recallme@korea.kr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장 김상훈 (044-960-6180)		한상윤 사무관 hansy@korea.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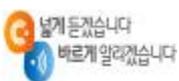
제목: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 이역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10(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①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기재부, 제목만 공개)
- ②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기재부, 제목만 공개)
- ③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④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환경부, 제목만 공개)
- ⑤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금융분야	(금융위)	해운분야	(해수부)
소상공인·중기분야	(중기부)	환경분야	(환경부)
관광분야	(문체부)	디지털분야	(과기부)
외식분야	(농식품부)	행정분야	(행안부)
수출입분야	(산업부)	공정거래분야	(공정위)
고용분야	(고용부)	통계분야	(통계청)
교통분야	(국토부)		

※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개최배경 】

제40차 정책점검회의¹⁾를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경제는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팬데믹 위기로 인해 잃어버린 성장까지를 감안한다면 아직 회복이 불완전한 상황²⁾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완전한 회복에 도달하기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4주간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말 투자 활성화와 소비 지원을 통한 경기 뒷받침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자 활성화의 경우 연내 110조원 목표 달성을 통한 민간 투자심리 촉진과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총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10조 투자프로젝트 중

기업투자는 당초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으며,

민자사업·공공기관 투자도 집행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 2022 OECD 경제전망(21.12월) : "Global activity is now above pre-pandemic levels, but the recovery is incomplete"

12.30일 시행 예정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을 조속히 완비하는 등 투자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확대·개편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하여 '25년까지 총 220조원으로 늘어난 투자계획 이행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연계하여 진행 중인 소비지원도 차질없는 준비와 점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급신청과 이의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약 4,300만명을 대상으로 10.8조원의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상생소비지원금도 1,5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참여 속에 다음주 수요일(12.15일) 11월분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말 까지 적용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였습니다. 11월부터 재개된 외식, 숙박, 여행 등 9개 소비쿠폰에 대해 연말까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코세페에 이어 중소·소상공인 판촉 등에 중점을 둔 크리스마스마켓 준비(12.18~26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점검회의는

완전한 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를 담아

①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②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③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④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경제팀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 】

첫 번째 안건은 110조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 점검입니다.

경기회복 전인과 투자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100조 투자프로젝트는
목표를 초과달성(103.7조원, 102.2%)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 버팀목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개선 모멘텀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해
기업투자 28조원, 민자사업 투자 17.3조원,
공공기관 투자 64.8조원으로 구성하여,
작년대비 10% 더 늘어난 총 110조원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간 정부는 투자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절차 신속 추진, 이해관계 조정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³⁾, 보증지원 확대⁴⁾와 함께
공공기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투자프로젝트는 11월말 기준
총 97.3조원(88.5%)을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3)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21년→~'23년),
기부채납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21년→~'24년) 등

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조원) : ('17)2.0→('18)2.1→('19)1.8→('20)2.1→('21)2.6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투자프로젝트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여
경기반등폭 극대화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투자의 추가 착공을 지원하고,
민자사업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역대 최고수준의 공공기관 투자 집행률(99.2%) 달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 】

다음 안건은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추진결과입니다.

지난 10월 1일 개시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두 달에 걸쳐 총 1,566만명이 참여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11.3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11월분 캐시백은 3,900억원 내외로 잠정 집계되었으며,
회계검사 등 최종 점검 절차를 거친 후,
12월 15일, 약 820만명의 국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지급된 10월분 캐시백 3,875억원은
현재까지 3,600억원 정도 사용되어
지급액의 90% 이상이 지출되었습니다.

10월과 11월 두달간의 사업 기간 중
카드사용액은 전년동월대비 각 13.4%, 13.7%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약 8천억원의 캐시백도
연말까지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여,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4분기 소비 회복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설계는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강점인
신용카드 인프라와 ICT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용처는 골목상권 등
지원이 더 필요한 곳으로 특정할 수 있었고,
지원대상 소비도 전체소비가 아닌
추가소비분 만을 따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사용실적과 그에 연계된 캐시백을
한 달 단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도 새롭게 시도된
매우 Target화된 소비전인 인센티브 정책이었던 만큼
KDI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 】

세 번째 안건은 설 물가 선제적 점검 및 관리계획입니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 물가상방압력 영향과, 10월 한파, 병충해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강세로 3.7%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강세, 공급차질 등으로 인한 어려운 물가여건 하에서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은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저울배추 비축을 추진하고, 올해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를 보인 마늘은 1만톤 수입(깐마늘 6천톤, 피마늘 4천톤)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불안심리가 확대된 계란은 가격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 중 수입란을 3천만개 도입하고, 내년에도 계란·계란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6개월 간 월 1억개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연장적용하여 8~30%의 기본 관세율을 0%로 크게 낮추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국제유가가 최고점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효과가 석유류 가격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시장점검단을 통해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업체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독려해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시장교란행위 확인시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어느덧 설 명절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설날은 1년 중 소비자 물가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가불안심리의 사전적 차단과
늘어나는 명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예년 설보다 3주 빠르게
다음주부터 바로 설 명절 물가대응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의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을 설 성수품 물가안정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합니다.

농림부, 해수부 등 주요 성수품 담당부처별로
부처 내에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여
17대 품목의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비축, 계약물량을 활용한
평시 대비 공급 확대 방안을
면밀히 준비하는 등 가격안정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응팀(팀장: 기재부 차관보)도
다음주부터 가동하여 범부처차원에서
사전 모니터링과 조기대응을 통해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 】

네 번째 안건은
지역사회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입니다.

탄소중립의 달성은
생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간 정부는 뉴딜의 지역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올해 11월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지자체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을 위한 법적기반도 갖추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2050년에는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통계 등을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고, 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환류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의 이행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효과성이 높은 사업, 주민 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의 재정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사업은 지방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기차,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전략분야 산업은 도심융합특구, 경제자유구역 등과 연계하여 인프라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지역사업으로 '21년에 6조 9천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내년에는 탄소중립 그린도시(19억원), 지역산업 친환경 설비투자(500억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총 9조 2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정부는 연말 경기관리와 리스크 점검에 만전을 다하면서 내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고 준비하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2022년 예산은 내년 시작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절차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 국회 의결을 마치고
현재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등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하순 발표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계도로 접어드는 희망찬 출발선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